

# 辨證施治와 定病專方

이장천

상지대학교 한의과대학 본초방제학교실

## A therapeutic following confirming symptom and a therapeutic regimen prescripton.

Lee jang cheon

Department of Oriental Medical Prescription Sangji University

A therapeutic following confirming symptom(辨證施治) has a proper characteristic in oriental medicine, which can be grasped but by pathological body reflection not by histological or molecular level etiology. It is also able to be selected a prescription by means of clinical trials which promote human body's natural resurgent. Whereas, a therapeutic regimen prescription(定病傳方) has a merit in prescribing a disease to the point, which has been developed and established a therapy method naturally for thousands years. Then, which of the two is the better method in clinic? The answer is a co-exist of the two therapy methods in a matter of developing deciding therapeutic cooperation. To tie a knot, two methods need the opposite one.

Key word : therapeutic following confirming symptom(辨證施治), therapeutic regimen prescription(定病傳方), etiology.

### 1. 緒 論

한의학의 特徵은 辨證施治라고 한다. 인체를 몇몇 器官으로, 器官을 組織으로, 組織은 細胞로 나누어 세포에 초점을 맞춘 細胞病理說이 서양의학 發展의 根幹이라면 [人體는 小宇宙]라고 하여 작지만 완전한 한 개체로써 인식하는 즉, 인간의 建康한 活動

이나 병리적 현상을 부분적으로 관찰하는 것은 不全하므로 全體를 有機的으로 把握, 認識해야 하며 따라서 證이라는 것은 개개의 症狀에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신체에 나타나는 症候群을 파악하여 병적 상태를 인식하고 거기에 치료대책으로 처방을 선택, 또는 구성하여야 한다는 整體觀이 辨證施治의 바탕이라 할 수 있겠다. 東洋醫學의 特徵이라고 하는 辨證施治와 西洋醫學의 치료방법이라고 하는 定病專方은 서로 어떻게 다르며, 어떤 장단점이 있는 지, 또 그것을 어떻게 보완하여 미래의학에 기여하느냐를 생각 정리 해보고자 한다.

교신저자: 이장천  
상지대학교 한의과대학 본초방제학교실  
Tel : 051-552-2501  
접수: 2002/5/14 수정: 2002/6/7 채택: 2002/6/19

## 2. 本 論

### 1) 辨證施治

證이란 병의 치료근거를 파악하는데 필요한 證據가 되고, 병의 계통을 파악하는데 환자로부터 얻어지는 정보가 되는 症候群인 것이다.

辨證施治란 急性傳染病을 다루었던 [傷寒論]에서는 六病(太陽病, 陽明病, 少陽病, 太陰病, 少陰病, 厥陰病)을 辨別하여 치료하는 것이고, 기타 慢性疾患(雜病)에서는 八綱(陰, 陽, 表, 裏, 寒, 熱, 虛, 實)을 辨別하여 치료하는 방법으로 설명되어지고 있다. 太陽病은 表證이고, 陽明病은 裏證이요, 少陽病은 半表半裏證인데, 表熱은 惡寒發熱하고, 裏熱은 反惡熱, 潮熱하며, 半表半裏證은 寒熱往來한다.

또 太陽病과 陽明病과 少陽病에서 모두 熱이 있는데, 그 熱이 太陽病에서는 惡寒發熱하여 表證임을 나타내며 陽明病에서는 反惡熱 潮熱하여 裏證임을 나타내며 少陽病에서는 寒熱往來하여 半表半裏證임을 나타내어 병이 신체 어느 계통에 病變을 일으키고 있는가를 판단하는 근거가 된다. 八綱 역시 陽, 表, 熱, 實 또는 陰, 裏, 寒, 虛로 정리 요약되어 病變 판단의 기초가 된다. 辨證施治는 병의 원인과 기전이 규명되지 못한 질환에 대하여 원인치료처방이 아닌 대증치료처방을 활용하는데 불가피한 방법이다. 그리고 辨證施治는 原因療法이 될 수는 결코 없다. 그것은 證을 아무리 분석해도 병의 원인과 기전 규명이 될 수가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원인은 病以前の 요인이며 證은 이미 羅病 後에 나타나는 症候群이고 그 證이라는 것도 時時刻刻 변해 가는 과정인 것이다.

그러므로 辨證施治란 병의 진행경과 중 신체의 병리적 장애와 자연회복력이 病勢로 나타나는 상황을 판단하는 방법이 辨證이고, 거기 해당하는 처방을 선택 또는 구성하여 치료대책을 세우는 일이 施治로서, 즉 병에 대한 신체적 반응을 변별하여 치료

한다는 뜻이 된다.

### 2) 定病專方(專病專方)

처방은 證에 의해 選用되어야 하는 것이 원칙이긴 하다. 그러나 실제의 임상에서는 病態의 판단과 證의 辨別이 어려운 경우가 많으며, 또한 처방에 따른 證 자체에도 不備點이 있어 이것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경험을 참작하지 않을 수 없다. 경험적인 치료법을 해설한 古來의 醫書들은 대개 病症마다 몇 개의 특정처방을 열거하여 그 중에도 적합한 처방을 선택하도록 되어있다.

즉 이와 같은 방법도 오래 전부터 전하여 온 것이다. 病症과 病類別로 일정한 證이 나타나기 쉬운 경향이 있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古典을 되돌아보아 [傷寒論] 이후의 [金匱要略]에서도 이미 이와 같은 病症別 分類方法으로 편집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리하여 [千金方]을 爲始해서 [和劑局方] 以下 많은 處方集書들은 거의 病類와 病症에 따라 치료처방을 열거하고 있다. [東醫寶鑑]과 [方藥合編]에도 [中風, 中暑, 食積, 痰飲, 瘀血] 등의 病因的 病名이나 [黃疸, 消渴, 水腫, 脹滿, 吐瀉, 腹痛] 등의 病症的 病名으로 분류하여 치료법을 해설하는 방식으로 되어 있다.

定病專方은 專病專方이라고도 하며 병이 정해진 뒤 한가지 병에 전적으로 쓰여지는 專用處方을 뜻하는 것으로 이와 같은 專方은 쉽게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오랜 세월 實踐(臨床經驗)을 통해서 認識되고 再認識(再確認) 되어 그 효능이 증명된 處方 즉, 오랜 세월 많은 임상경험을 통하여 시행착오와 성공을 반복하면서 확률높은 치료처방이 개발된 것으로 정해진 병에 전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이며, 서양의학에서는 병의 原因과 機轉이 糾明된 것에 대하여 약이 정해 있을 경우가 이에 해당된다.

### 3. 結 論

1) 辨證施治는 韓醫學만이 지니는 특징임을 아무도 否認할 수는 없다. 그러나 辨證施治는 병의 원인을 糾明하기보다는 병의 진행과정의 병리적 변화에 대한 신체적 반응을 파악하여, 그에 대한 치료대책으로서 처방을 선택하거나 구성함으로써 인체의 자연회복기능을 촉진시켜 치료효과가 나도록 하는 것이다. 辨證施治는 疾患治療와 健康回復에 진료수단으로 必須不可缺한 것이긴 하지만 치료방법으로서 가장 卓越한 방법이라고 믿는 것은 잘못이다. 그러나, 아직은 모든 병의 原因 및 機轉에 대한 규명이 안되었을 뿐 아니라, 定病專方이 개발되지 못한 만큼 辨證施治는 훌륭한 治療方法이라고 할 수 있다.

2) 定病專方, 이와 같이 處方을 정하는 것이 正道가 아닌 것은 말할 필요도 없다. 실제의 病態에서 하나의 病症에 한 두 處方이 정해지고 이것이 반드시 適中하기란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適中할 가능성이 많은 處方을 경험적으로 열거할 수는 있을 것이다. 그리하여 각 처방을 適中시키기 위한 조건 (選方의 目標)을 附記함으로써 處方選擇의 기준으로 하는 것은 무의미하지는 않는 것이다. 즉 수 없이 많은 醫方중에서 適方을 선택하는 어려움을 덜기 위해서 어떤 병증에 유효한 처방을 경험적으로 列擧하여 이것으로 실용상의 便宜를 주는 것이 필요하다. 專病專方은 절대로 輕視해서는 안될뿐 아니라 오히려 韓醫學 發展을 위하여 더욱 더 研究開發하기에 主力해야 한다.

3) 辨證施治와 定病專方 중 어느 것이 더 우수한 治療方法이나? 悠久한 세월 治療手段을 摸索해 오는 과정에 자연스럽게 발달된 치료방법으로 定病專方이 보다 확실한 治療方法이다. 하지만 모든 병의 專方이 개발되기는 불가능하다. 病名이 규명되지 않

아 치료방침이 없는 것보다는 辨證施治로 대처 하는 일이 현명한 방법일 것이다. 따라서 앞으로도 辨證施治와 定病專方은 모든 병의 치료방법으로 함께 共存할 것이다.

### 參 考 文 獻

- ① 강순수, 『바른 方劑學』, 大星文化社 1996, p 30-32
- ② 張仲景, 『傷寒論』, 고문사(高文社) 1975, p 23-35
- ③ 張仲景, 『金匱要略』, 아울로스출판사 1994, p 1-4
- ④ 孫思邈, 『備急千金要方』, 大星文化社 1992, p 3-8
- ⑤ 宋代 太醫局 『太平惠民和劑局方』, 人民衛生出版社, 1985 p 7-41
- ⑥ 許浚, 『東醫寶鑑』, 南山堂 1975, p 1-71
- ⑦ 黃度淵, 『方藥合編』, 南山堂 1987, p 5-45